

〈사회복지사 부자만들기 아카데미〉를 만들자

잠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 글 : 김창준 사회복지사 부자되기 아카데미 원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재정분과위원장



10년 전 여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모금파트 과장으로 후원을 개발하러 기업 방문을 했을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테크 세미나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부자를 가까이해라!”

라는 강사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방인처럼 낯설어하는 모습과 부정적 생각으로 강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굶는 아이들이 천지인데 이곳은 부자타령 만 하다니...” 그 당시 세 명의 식구를 책임지는 가정의 급여로는 너무 적어서 월급날이면 얇은 봉투에 작아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월급으로 무엇을 사고, 준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적금을 하면 얼마나 모을 수 있다고...”

지금 기억해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무관리에 성공한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며 배우기는커녕 ‘부모를 잘 만났나 보군... , 사회복지는 안하고 자기 실리만 찾았나?’ 하면서 함부로 폄하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되어 뒤늦게나마 깊이 사과 드립니다. 아마도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가 필요해서 남 흉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문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슥 우화가 떠오르네요.

‘여우와 포도’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날 갈증을 몹시 느꼈던 여우가 넝쿨에 달려있는 포도를 보고 너무나 기뻐 꺾충 꺾충 뛰며 여러 차례 포도를 따려고 시도했으나, 안타깝게도 지쳐버린 여우는 자조 섞인 목소리만 남기고 떠납니다. “아마도 저 포도는 무척이나 맛있고 신포도 일꺼야...”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운전하실 때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길 치었던 제가 낯선 길을 가도 자신감을 갖게 된 건 정말 놀라운 긍정적 변화이지요.

예전에는 도로도 많지 않았고 근거리 이동이어서 모르는 길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었는데 급속한 속도로 도로환경이 변하면서 수시로 새로운 길이 생기자 ‘도로교통 지도 책’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예측불허의 도로 상황을 보다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아직도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분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망망대해를 향해한다고 상상해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이 목적지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지나 목적지인 행복이라는 항구에 모두가 성공적으로 도착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네비게이션을 준비하십시오! 최소한 항해도와 나침반만이라도...! 이것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부자만들기」아카데미를 개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앞으로 매월 지면을 통해 여러분 삶의 필수적인 네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 스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지현장에서 귀한 땀을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부자가 되는 야심찬 꿈을 함께 꾸어 봅시다. 나눌 줄 아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자’가 많은 세상,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아닐까요?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다 은퇴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뒷모습이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Social Worker라는 전문직에 많은 후배들이 앞다투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카데미의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가야 할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말라야를 등반하더라도 유능한 셀파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 「부자만들기」아카데미와 함께 희망의 배를 힘차게 띄워 봅시다. Here & Right Now!!! 